

사례분석을 통한 해외여행안전교육요구도 조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 유승범·정종수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또한 발생하였던 각종 사건사고를 사례분석하고 해외여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여행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인터넷 뉴스 및 통계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안전 교육 지도서에 나와있는 교육방법에 맞게 대처 되었는지를 또한 어떠한 점이 부족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해외여행 안전교육 개념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대륙별 안전여행 가이드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해외여행 안전 교육 지도서를 기초근거로 하여 해외여행자 학습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해외여행자 안전사고 사례

해외여행자의 안전사고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해외여행목적지를 대륙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비용에서도 부담이 덜한 아시아 지역으로 방문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의 욕구변화와 경제적 여유 등은 해외여행자의 다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또는 사건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아무런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을 끝내면 좋겠으나 만약 사건 사고를 국외여행지에서 당한다면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문제와 각국의 문화, 국민의식 등으로 국내에서 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예시로 남미대륙으로의 여행 시 우리나라민이 당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유형과 대처방법 등을 정리한 '미주 안전여행가이드'를 참고로 하여 많은 남미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A.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지대에서 마약밀수 및 총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오 및 상파울루는 빈민가의 활동을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과 경찰과의 총격전, 마약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총격전이 반복되고 있다. 위성도시에서는 살인, 유괴, 강간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또한 마약조직 간 세력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배낭여행객 최 모 씨가 호텔 물색을 위해 시내 보행 중 14세 가량의 청소년 3명이 소지품 가방을 강탈해 갔다.

B. 아르헨티나

국가정보기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접경지역에 국제테러 조직원의 은신 및 활동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치안문제는 1998년 가장 이래 장기적인 경제 불안, 경제위기로 인한 민중시위로 악화되고 있다.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제 사정은 나아지고 있으나 32%

에 달하는 빈곤층의 생계형범죄 및 빈민층 청소년의 마약사범증가 등 치안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8년 교민이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권총을 소지한 강도 4명이 접근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강도 1명이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C. 칠레

칠레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 최근 사회 기강해이로 무장 강도, 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점포지붕을 뜯고 물품을 훔쳐간 사례가 있다.

2. 해외여행자 안전사고 대처방법

A. 여권, 항공권,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등 분실 도난 방지하기 위한 보관방법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한국 공관에 분실 신고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해야 함으로 손실이 크게 된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호텔이나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취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여행시 안내원이 관광객 여권을 일관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분실 또는 도난시 재발급에 대비하여 각종의 일련번호와 발행 년, 월, 일을 적어 별도로 보관하고 가족에게 남겨두면 비상시에 연락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 등을 한 곳에 넣고 다니면 한꺼번에 분실, 도난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여러 곳에 나누어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B. 일반적인 인질, 납치 대응 방법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한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면 안된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C. 해외 자연적 재난 안전

지진이 발생했을 시 건물 내부에서는 견고한 탁자 아래, 화장실로 대피한다.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 건물외부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건물 가로들 전선 근처로 가지 않는다. 빌딩이 많은 곳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므로 우선 가지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장소로 대피한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건물내부에 있다면 낮은 자세로 대피하되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지 않는다. 불길 속을 통과 시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야 한다.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만져서 손잡이가 뜨거우면 불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D. 해외 사회적 재난 안전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테러 중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한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 심장, 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한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시에

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한다.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한다. 또한 테러 발생시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에 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결론

해외여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쯤은 다녀왔을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건 사고에 노출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해외여행자안전교육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어떤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국민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